

## 도서관 개혁 원년을 여는 주체가 됩시다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신기남

존경하는 회원 도서관과 도서관인 여러분 !

2002년 임오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국가적으로도 월드컵축구 대회, 각종 선거 등 중차대한 일이 많은 때입니다만, 우리 도서관계에도 많은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어 더욱 분발이 요구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한국도서관협회가 도서관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개혁의 선두에 서서 그 맡은 바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분골쇄신의 의지로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2001년 한 해는 국내외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우리 도서관계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식정보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도서관이 아직도 사회의 핵심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명칭변경이나 민간위탁 등의 문제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공공도서관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전문사서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사서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이 또한 우리들의 큰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면서 도서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외형적인 변화 뿐 아니라 실제 도서관의 서비스 기능이 중시되고 이를 위한 근본적인 투자, 즉 장서확충과 전문인력 확보 등 해묵은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균형잡힌 발전이야말로 21세기 도서관의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작년 한 해는 학교도서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담당부서(조정2과)가 생겼고, 몇몇 교육청에서는 사서교사를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이 적극 나서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조성에 나서고 있어 조만간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낙후되었던 학교도서관이 발전한다면 우리 도서관계에도 큰 변화와 발전의 여파가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사회가 우리 도서관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방송과 신문 등에서 도서관과 독서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도 도서관의 필요성을 조금씩 인식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02년 올 한 해는 도서관 개혁의 원년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도서관을 더 이상 외롭고 그늘진 곳에 방치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도서관인들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관을 맡아 책임지고 있는 이상 도서관의 참다운 가치를 널리 사회에 알리고 실제로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물론 너무도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어려움도 결코 새로운 시대를 열것

다는 우리들의 의지를 꺾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협회를 중심으로 더욱 단결하고 도서관 현장과 사회 곳곳에서 도서관의 가치를 드러내고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발현하는 일에 각자가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도서관 업무를 시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도서관을 서비스 기관으로 바꾸어 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도서관에 대한 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서관 업무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자발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사서들은 최우선적으로 서비스 일선에 나서야 하며, 도서관 업무를 표준화하고 간소화하여 이용자들에게 빠르면서도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이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 진보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서관 운영자들의 자세 변화와 변혁의 의지가 문제가 될 뿐입니다. 또한 사회의 제반 개혁 움직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도서관은 사회적 기관으로 한 순간도 사회의 변화의 핵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도서관과 도서관인들은 이제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사회의 개혁 요구를 수용하여 이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기관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도서관을 개혁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올 해 들어 정부에서는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의지를 밝히는 등, 비로소 도서관을 정책의 주요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도서관계도 객관적이면서도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열린 마음과 자세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의 어려움은 역시 개혁주체가 먼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갈 수는 없기에, 이제 우리 모두는 불퇴의 각오로 도서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역사적 과제 수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변혁의 시대를 여는 선구자들은 무엇보다도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사사로운 인기나 개인적 견해에 매여 미래지향적이며 대중적인 입장을 잃어버리거나 대승적 자세를 갖지 못한다면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사로운 개개의 입장을 버리고 협회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하여 도서관의 발전을, 도서관인의 미래를, 그리고 나아가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국가와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 내는 선구자가 될 것을 희망합니다. 우리 협회는 올 한 해를 새로운 변혁과 도약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여 도서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며, 회원 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현장의 개혁을 주도하며, 사회의 제 단체와 개인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발현할 것입니다. 또한 IFLA 2006 서울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우리 도서관계의 세계적 위상 제고를 위해 올 해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갈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사무국의 의지는 물론 회원 도서관과 도서관인 여러분들의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회원 도서관과 도서관인 여러분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 임오년이 그러한 의지를 담아 시작되었다고 확신하면서 회원 도서관과 도서관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